

오늘의 말씀은 승리(勝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내용이 넉넉히 이기는 승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성경의 뉘앙스는 보다 강합니다. we are more than conquerors (New International Version/King James Bible) we overwhelmingly conquer (New American Standard Bible) “우리는 단순한 정복자 이상이다.” “우리는 그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이긴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바울은 어떤 승리를 우리에게 제시(提示)하고 있을까? 이것이 오늘의 핵심포인트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승리(勝利)는 다음과 같은 3가지 특징(特徵)이 있습니다.

1. 이 승리는, 고난을 통과하는 가운데에서의 승리입니다. (36-37)

36.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35절에서 7가지 고난(苦難)들을 보았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하나 만만치 않은 것들입니다. 이런 시련들이 외적, 내적으로 겹겹이 엄습해 올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패배(敗北)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36절입니다. 이 구절은 무엇을 말하려합니까?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지난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의 “기록된 바”는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것은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고라 자손은 성전에서 예배와 찬양을 담당했던 레위인 후손입니다.

예배자로서 고라자손은 (히스기야시대?) 전쟁의 패배와 국가적 굴욕, 격심한 박해와 압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개입(介入)과 구원(救援)을 절박하게 호소(呼訴)합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屠殺)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苦難)과 압제(壓制)를 잊으시나이까 (시편44:22)

바울은 이 시편을 인용하여, 초대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겪는 현실(現實)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고난이 없는 가운데서의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것이 성경적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 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 승리의 첫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고난을 통과하면서도 그것을 이겨내는 승리라는 것입니다.

구약성도들이 그러했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그러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은 하나님의 종이 박해받고 도살될 양처럼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특히 53:7절에서 “그가 곤욕(困辱)과 심문(審問)을 당하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羊)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함과 같이, 그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로 표현됩니다.

여기서 '도살장의 양처럼'이라는 표현은 시편 44:22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승리(勝利)란, 이런 환경가운데서의 승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롬8:35 - 7가지 환경 <환란>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의 상황에서의 승리입니다.

tribulation, or distress, or persecution, or, or nakedness, or peril, or sword? (King James Bible)

* 이 단어들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과 깊이 상관되어있습니다.

* '환란'과 '곤고'는 원인(原因)과 결과(結果)일 수 있습니다. 모든 인생에게 환란은 찾아옵니다. 건강상의 문제, 사건사고, 사람과의 관계가운데서 오는 절망감과 상실, 사랑하는 이들을 잃는 일 등등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곤고케 합니다.

* 기근(famine)과 적신(nakedness) : 기근은 기후 변화와 자연재해 병충해와 전염병 등 환경적, 자연적 요인이 주를 이룹니다. 적신은 그 결과로 옷이 없어 헐벗은 상태. 경제적 가난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은 옷이 없진 않아도 자신을 중산층이나 그 이하의 삶을 산다고 느끼며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고 산다면 마찬가지로이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에게서 우리가 평정심(平靜心)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공적으로 가질 수 있을까요?

* '박해' '위험' '칼'은 외적인 환경, 사회적으로 찾아옵니다. 아직 우리에게 이런 일을 실제적으로 당하지는 않은 것같아 보여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내가 나의 신분을 확실하게 밝히고 주장하는 순간으로부터 이 박해와 핍박과 위험과 협박은 근거리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런 상황에서 영적전쟁(靈的戰爭)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이겨야 합니다. 우리의 힘은 나약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넉넉히 이길까요? 그런데 이 문제를 풀기전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아마 놀라서 주저앉아야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자 지금까지 저는 이 승리는, 고난을 통과하는 가운데에서 하는 승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문 38-39절은 다른 차원을 이야기합니다.

2. 이 승리는, 강력한 영적존재들과의 싸움에서의 승리라는 사실입니다. (38-39)

바울사도는 <우리>에서 <나>로 주어를 바꾸고 있습니다.

37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하더니, 여기선 <내가 확신하노나>라고 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확신하는 바가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바울은 종종 신약에서 자신의 확신을 선포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빌립보서 1:6, 디모데후서 1:12절 같은 것들입니다.

빌립보서 1:6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 하노라**” 이것은 →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시작했으면 반드시 완성하신다는 확신입니다.

디모데후서 1:12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것은 → 하나님께 자신이 맡긴 모든 것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확신은 그 스케일이 많이 다릅니다.

38.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니, 천사들이나 천제자들이니,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

나 39.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나오는 것을 그냥세면, 10개정도가 됩니다. '사망'부터 '다른 어떤 피조물'(被造物)까지... 하나같이 우리가 생각해둔 말들이 아니지요?

가장 친근한 단어는 처음 나오는 사망(Death) 생명(Life)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직면하고 싸우는 용어이기도하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은 목을 메고 있습니다. 안죽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지요, 날마다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두려운 단어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묻는 것처럼 느낍니다. <살고 죽는 문제에서도 너는 두렵지 않고 네 믿음 지킬 수 있느냐?>

그러나 천사들(Angels) 권세자들(Rulers) 능력(Powers)과 같은 말씀들은 얼마나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말씀들인지요.. 이들은 다 영적 존재들입니다(Spiritual Beings) 천사와 권세자들은 천상의 존재들로 선한 천사들이며, 능력(powers)역시, 초자연적 능력을 가진 존재로, 사탄과 그의 세력을 지칭할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우리가 무슨 가상의 게임세계에 들어온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실세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인식범위를 초월해 있을 뿐 이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하는 10가지 단어에는, 현재 일(Present things)과 장래 일(Future things)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둘 다 모르죠 알고 싶습니다만, 거기에, 이해의 정도인 높음(Height)과 깊음(Depth)이라는 다차원의 문제까지 말하고 있다면, 우리의 지성과 이해는 참으로 부족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현재일과 장래일이라는 시간적(時間的) 범위와, 높음과 깊음이라는 공간적(空間的) 범위와 만나, 시공간(視空間)을 형성합니다. 사도바울이 이런 철학적(哲學的)이고, 물리적(物理的)인 언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가 시대를 초월한 우주적(宇宙的), 미래적(未來的) 사고를 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현재도 미래도 완전히 알수 없다는 이유로 불안해하고, 전 세계의 실제적인 움직임의 깊이를 알수 없어서, 표면적인 정치계의 흐름속에 내면을 읽어내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특히 바울이 말한 10번째 단어에 주목합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피조물 (Anything else in all creation (πας κτίσις)이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단수입니다(여성 단수 주격) 이 단어는 상상의 날개를 펴게 만듭니다. 이 "다른 어떤 피조물"은 앞서 언급된 "천사들", "권세자들", "능력들"에 더해지는 최종 항목으로, 이들보다 더 구체적인 어떤 존재를 지칭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위기의 시대마다 세계를 지배하여는 특별한 존재들에 대해 언급해왔습니다.

이사야 14:12-14절에 보면, <비벨론 왕>에 대하여 이사야의 예언이 있습니다.

12.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구를 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13.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앉으리라 14.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리라 하는도다.

다니엘서 8장에도 보면, <한 뿔의 등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9.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10.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의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11.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12.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진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지리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예수님의 계시록이라고 불리는 마태 24:15-31절에도 <멸망의 기증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5.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기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다니엘 9:27, 11:31, 12:11 16.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17.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 가지 말며 18. 밭에 있는 자는 걸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19. 그 날에는 아이 밴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이다 20.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저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21. 이는 그 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22.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29.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30.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1.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바울도 데살로니가 2:1-3절에서, 말세에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의 출현을 예고합니다.

3.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4.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성경이 말하는 바는 이 모든 종말의 사건은, 우리 일반 그리스도인들의 이해의 영역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미리 계시로 주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이야기해주심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환경과 미래의 일에 대한 지식으로 놀라지 않고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비록 적그리스도가 등장해 온 세계를 미혹하지만 그 결국은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승리를 하게 될 것이니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가 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을 수 있는지.. 그 믿음으로 어떤 영적존재가 우리를 위협해 와도 이길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강력한 영적존재들과의 싸움에서의 승리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역량이 있는것인지요 여기서 3번째 승리의 특징이 나옵니다.

3. 이 승리는 사랑의 확신에서 오는 승리입니다.

우린 38-39절을 다시 읽어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8.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39.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은 로마서 8:37의 말씀에서도 원리가 동일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구절에서 바울은, 성도의 승리의 근거가 ‘**사랑하시는 이**’,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사랑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러니 결론이 분명합니다.

앞에서는(8:37) 어떤 고난의 상황에 대한 승리를 외쳤습니다.

뒤에서는(8:39) 어떤 존재에 대한 승리를 외칩니다.

아무도 이런 일에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느 인간이 이것에 서겠습니까? 바울은 이 모든 상황에서 자신의 능력위에 서지 않습니다. 그는 다만 하나님의 사랑위에 섭니다.

이 모든 승리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유한하고 조건적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다윗도 시편103편에서..

시편 103:8-13 "여호와께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이다."

이사야선지자는 이사야 54:10절에서, "산(山)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예레미야선지자도, 애가 3:22-23 "여호와의 인지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 이나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놓을 수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확신했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그 어떤 힘에도 굴복하지 않는 것 그것이 승리입니다.

이 사랑을 믿을 때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준>이나 <적산>이나 <위험>이나 <칼>에서도 이깁니다.

이 사랑을 믿는자는 1) 그에게 삶도 죽음도 문제가 안됩니다.

2) 천사나 악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3)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그것의 굴곡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4) 어떤 적그리스도나 지능적인 AI의 존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이것만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부활장을 끝내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전신했으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앎이라." (고전15:57-58)

로마서 8장을 마치면서 저는 8:31-32절을 말함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한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기도합니다.

기도: 하나님 우리가 사는 환경에는 온갖 종류의 부비추렷과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은 단지 인간들이 아니고, 하늘에있는 영적존재들과 악한 영들이며 그들과 그들의 지휘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사탄입니다. 우리는 저들과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실을 의지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우리를 압도적으로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